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5월 31일**

아들을 통하여 히1:1-14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따라 가는 삶을 살면 응답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복음을 고백하고 관련된 성경 구절로 나의 내면을 살리고 받은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무슨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 그 받은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만나는 길이요 준비된 그 사람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것으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 한 사람으로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들으라. 그냥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 것이고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게 하는 비밀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유는 예배를 예사로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이것 하나 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 가족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면 당연히 그들을 위하여도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나 친척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길을 전하고 복음 편지로 말씀 운동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통 분모입니다. 그 사람의 가슴을 울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어 하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아들을 통하여

1) 1절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시고 2절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군가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그를 말미암아 지었다고 시고 3절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십니다
2) 4절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시고 5절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냐고 시2: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삼하 7:14의 말씀을 인용하여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 라고 하셨느냐고 반문하십니다. 6절은 시97:7을 인용하여 맏아들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는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3) 그리고 7절은 시104:4을 인용하여 주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하시고 8절은 시45:6 이하를 인용하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하십니다. 10-12은 시102:25을 인용하여 주님이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나 그것들은 멸망하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지만 주는 영존하시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4) 13절은 시110:1을 인용하여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

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에게 걸려 있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정복이 오직 그에게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조용히 묵상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 말씀

1) 2절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 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아무 것도 필요 없고 말씀이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외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 창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의 모든 기록은 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정을 거친 이후에 결국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 22장에서 그 아들 대신 수양이 죽게 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감하였습니다.
3)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아들 6명을 더 낳을 정도로 50년 이상을 더 살았지만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고 오늘 본문의 아들을 상징하는 수양을 대신 죽이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수양이었고 그 수양을 통하여 아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 이 말씀의 원리는 아브라함 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딤후4:1-2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 운동을 하라고 엄히 명령을 했고 딛1:3에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사람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5) 눅1:2에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말씀의 일꾼된 자” 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도 그냥 간단히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냥 말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틀어서 온통 말씀 성취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하나님은 이미 기록하신 말씀대로 하시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내 인생의 흐름의 바탕이 되고 받은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을 성경처럼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만남이 없이는 응답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7)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따라 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인생 역전이 여기에 있고 이것이 성경적 전도의 근본입니다. 응답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길을 바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신 것은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